

# 都市研究의 새로운 觀點: 人間行態의 接近

李 喜 演\*

<<目 次>>

1. 序 論	(3) 居住地 移動
2. 人間行態의 觀點에서 都市環境의 理解	(4) 都市의 物理的 環境과 人間活動: 構造主義的 觀點
3. 都市環境 研究의 最近動向: 人間行態의 接近	(5) 歷史性이 있는 現存 都市環境
(1) 都市環境에 대한 知覺, 認識, 態度	4. 結 論
(2) 都市內部에서의 通行 패턴	

## 1. 序 論

19세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세계의 都市들은 급속하게 成長하기 시작하였다.<sup>1)</sup> 都市人口의 比重이 급격히 증대됨에 따라 都市의 成長 및 構造와 관련된 많은 研究들이 여러 학문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프랑스, 독일에서 대두된 都市研究의 傾向은 그 후 영국과 미국등으로 전해지면서 점차로 體系化되기 시작했다.<sup>2)</sup>

프랑스의 研究動向은 주로 Blache의 思想을 토대로, “自然的·歷史的·政治的·經濟的 要因들이 地域間의 同質性(unity)과 多樣性(variability)을 어떻게 決定짓고 있는가?”에 研究의 초점을 두었으며,<sup>3)</sup> 특히 都市의 site와 situation

을 조사하고 이들 要素들간의 關係分析에 역점을 두어왔다.

독일에서의 都市研究의 動向은 주로 都市의 物理的 形態(혹은 形狀: physiognomy), 都市設計, 土地利用計劃, 中心地와 背後地와의 關係 등등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sup>4)</sup>

영국에서 都市에 관한 획기적인 研究方向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은 植物學者, 生態學者이며 都市計劃家인 P. Geddes이다.<sup>5)</sup> 그는 都市計劃 또는 都市研究를 하나의 學問으로 성립시킨 선구자라고 볼 수 있다. 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12년 동안 계속해서 매년 8월에 Edinburgh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당시 유럽과 미국의 유명한 都市研究家나 都市計劃家들(예를 들면, Mumford, Abercrombie, Kropotkin)은 Geddes의 思想을 활발하게 논의하였다.<sup>6)</sup> 또한 1923

\* 건국대학교 지리학과 조교수(Ph.D.)

- 1) Webber, A.F., 1899, *The Growth of Cities in the 19<sup>th</sup> Century*, Studies in History, Economics and public Law, Vol. II,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 2) Auroseau, M., 1924, “Recent Contributions to Urban Geography: A Review,” *Geographical Review*, Vol. 14, pp.444-445.
- 3) Paul Vidal de la Blache, 1926, *Principles of Human Geography*, London: Constable.
- 4) Ratzel, F., 1903, “Die Geographische Lage der Grossen Städte,” in Bucher, K. (ed.), *Vorträge und Aufsätze zur Städte ausstellung*, Dresden;
- Hettner, A., 1985, “Die Lage der Menschlichen Ansiedlungen.” *Geographische Zeitschrift*, Vol. 1, pp. 361-375.
- 5) Geddes, P., 1915, *Cities in Evolution*, London: Williams and Norgate.
- 6) Boardman, P., 1944, *Patrick Geddes, Maker of the Future*,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년 미국의 地理學協會 會長이었던 Barrows 교수는 Geddes의 思想을 기저로 “人間生態地理學”이란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하였다.<sup>7)</sup> 1925년에 R. E. Park와 E. W. Burgess가 저술한 “都市(The City)”라는 책도 직접·간접으로 Geddes의 思想의 영향을 크게 받은 책 중의 하나이다.<sup>8)</sup>

이러한 研究動向외에도 미국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진 또 하나의 都市研究의 추세는 都市內에서의 地價의 變異와 地價를 변동시키는 要因을 규명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研究가 이루어지게 된 이유는 1865년 이후 미국의 都市들이 급성장하면서, 대부분이 私有地로 되어있는 土地가 하나의 투기대상이 되면서, 土地의 價格과 土地利用에 상당히 많은 變化가 나타났기 때문이었다.<sup>9)</sup>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都市研究의 動向은 1950년 이후 自然科學의 획기적인 발전에 힘입어 社會科學 分野에서도 科學的 方法을 도입하게 됨으로써 많은 變化를 가져왔다. 地域, 國家世界와 같은 다양한 地理的 次元에서의 人間의 行爲와 空間配列에 관해 세심한 觀察과 測定, 數學的 推理, 統計的 推論, 理論定立, 모델화 및 法則을 추구하려는 시도가 地理學 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sup>10)</sup> 都市에 관한 研究도 地理空間上에서의 都市의 分布와 都市內部的 構造에 관해 一般化하려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經濟發展과 더불어 都市化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都市記劃, 地域開發, 地理學 등등의 여러 관련 분야의 學者들이 都市에 관한 研究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특히 서구에서 연구된 都市理論과 方法論등이 도입되면서 都市地理學者들을 주축으

로 地理學에서도 都市에 관한 研究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지금까지 수행되어온 都市研究의 動向은 都市體系(systems of urban places)에 관한 일련의 研究와 都市內部構造(internal structure of urban areas)에 관한 研究들이 주축을 이루어왔다.<sup>11)</sup>

그러나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都市環境과 人間과의 關係, 이를테면 市民들이 都市環境에 관해 어떻게 知覺하고, 認識하고 있으며, 또 그들의 知覺과 認識水準에 따라 그들은 어떻게 行動하고 있는가 등등의 都市環境에 대한 人間行態의 側面에서의 研究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小稿에서는 그동안 외국(주로 미국)에서 이루어진 行態的 研究動向을 종합적으로 考察해 봄으로써,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觀心을 가져오지 않았던 行態的 研究에 대한 研究의 필요성과 중요성, 理論的 基礎 및 研究 方法등을 소개하고, 아울러 都市研究에서 人間行態의 接近이라는 새로운 眼目을 부어하려는데 그 目的을 두고 있다.

## 2. 人間行態의 觀點에서 都市環境의 理解

都市란 살아있는 有機體와 같아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變化하게 된다. 또한 그 都市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慾求가 바뀌어감에 따라 都市空間構造는 변형되게 마련이다. 특히 都市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時代的 背景이나 社會·經濟的 狀況에 따라 都市의 物理的 構造의 變化는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법이다.

- 7) Barrows, H.H., 1923, "Geography as Human Ecology," *Annals,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Vol. 13, pp.1-14.
- 8) Park, R.E., Burgess, E.W. and Mckenzie, R.D., 1925, *The C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9) Hurd, R.M., 1905, *Principles of City Land Values*, New York: The Record and Guide; Haig, R.M., 1926, "Toward an Understanding of the Metropoli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pp. 179ff; 402ff;
- 10) Dorau, H.B. and Hinman, A.G., 1928, *Urban Land Economics*, New York: Macmillan.
- 11) Chorley, R.J. and Haggett, P. (eds.), 1967, *Models in Geography*, London: Methuen; Harvey, D., 1969, *Explanation in Geography*, London: Edward Arnold; Taaffe, E.J. (ed), 1970, *Geography*;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 11) 朴英漢, 1983, "韓國都市地理學의 研究動向과 都市 理解의 方向", 地理學論叢, 第10號, pp.71-85.

흔히 오늘날의 都市는 都市計劃家나 政策家들의 計劃과 戰略에 따라서 변화되고 있어 都市環境은 마치 形成되어 간다고 생각하는 傾向이 있다. 그러나 都市開發事業이나 都市再開發事業이 施行되는 過程에서 社會的 물의를 일으키는 事例들을 흔히 볼 수 있으며, 때로는 그 地域住民들과의 마찰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多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이 야기되는 理由중의 하나는 특정한 都市景觀에 대해 그 地域住民들이 어떻게 認知하고 受容하며, 또 行動하는가 등에 대한 行態의 特性에 관한 심층적인 研究가 進行되지 않은 事業이 施行되었기 때문이다.

都市는 사람들의 知覺과 認識, 그리고 行動에 의해 체험되는 삶의 經驗場으로서의 生活環境이다. 이러한 生活의 場으로서의 都市環境 자체는 그 環境에 適應 또는 反應하는 方法이나, 環境에 대한 知覺形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장 이상적인 質의 水準의 生活環境(Quality of Life)이란 주어진 自然的, 人工的 環境속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의 認識構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生活의 場으로서의 都市는 環境이라는 物理的 要素와 都市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物理的 要素와 相互作用하면서 나타내 보이는 反應 또는 相關關係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일한 物理的 環境에 대한 사람들의 反應도 개인의 美的 感覺, 과거의 經驗, 認識水準이나 判斷基準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都市環境에 대해 올바르게 認識하고 理解하려면, 人間의 慾求, 經驗, 思考方式을 기초로 體系화된 人間行態의 觀點(humanistic behavioral perspectives)에서 출발하

여야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都市計劃 分野의 전문가와 建築 分野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都市의 物理的 要素와 文化的 景觀에 대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의 認知水準을 파악해보려는 研究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져오고 있지만,<sup>12)</sup> 그러나 아직도 都市環境研究에 있어서 經驗과 思考方式을 바탕으로 한 人間中心的이고 行態의인 연구의 接近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研究는 都市를 研究對象으로 삼고 있는 都市地理學者들에 의해서 심층적으로 연구·분석되어야 될 것이며, 그러한 研究結果는 都市計劃家, 交通計劃家 및 建築家들이 都市計劃, 都市設計 또는 再開發事業을 수립할 때 반드시 참고하여야만 되는 매우 귀중한 자료인 것이다.

### 3. 都市環境 研究의 最近動向 : 人間行態의 接近

都市環境과 人間行態의 관계에 대한 研究는 1970년대에 미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人間行態의 接近에서는 사람들이 都市環境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며, 또 그들이 都市에 관해 알고 또 經驗한 것들을 토대로 都市環境에 대해 어떻게 感情的으로 反應하는가, 그리고 그들의 知識과 感情이 都市에서의 그들의 活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또 영향을 받는가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sup>13)</sup> 미국의 경우 都市環境과 都市民과의 行態의 研究動向은 1) 都市環境에 대한 知覺, 認識, 態度, 2) 都市內部에서의 通行決定 3) 居住地 移動, 4) 構造主義 觀點에서 都市環境의 理解, 그리고 5) 歷史性이 있는 現存 都市

- 12) 金賢善, 1983, 認知地圖를 이용한 서울市 都心部 이미지 分析에 관한 研究, 서울大 環境大學院 碩士論文; 李建榮, 金龍基, 1984, “서울 都心地의 랜드마크에 대한 認知와 相關變數에 관한 分析的 研究”, 國土計劃, 第19卷, 第2號, pp. 21-32; 李揆穆, 1982, “都市景觀의 構成理界에 관한 知覺의 考察”, 國土計劃, 第17卷, 第1號, pp. 41-48. 趙大成, 1982, “都市建築의 環境知覺과 Parallax의 공간미에 관한 研究”, 國土計劃, 第17卷, 第2號, pp. 27-39; 黃熙淵, 1985, “都市形態에 대한 文化景觀의 解析”, 國土計劃, 第20卷, 第1號, pp. 74-87.
- 13) 대표적인 研究로는  
Cybriwsky, R.A., 1978, “Social Aspects of Neighborhood change,” *Annals,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Vol. 68, pp. 17-33.  
Hurst, M.E.E., 1975, *I came to the City*, Boston: Houghton Mifflin;  
Jones, E., 1960, *The Social Geography of Belfas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Western, J., 1981, *Outcast Cape Tow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環境 등의 다섯가지 領域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 (1) 都市環境에 대한 知覺, 認識, 態度

知覺(perception)에 관한 研究는 주로 感覺機關을 통해 외부의 環境的 刺戟을 받아들이거나 또는 理解할 수 있는 能力내지 行動에 着점을 둔 것이다. 地理學者들은 주로 都市民이나 都市通行人들이 都市 자체나, 都市의 構造와 機能, 그리고 都市로부터의 혜택과 재해등에 關해 어떻게 배우게되는가를 조사한다. 때때로 이런 연구들은 選別된 階層의 대상자들을 표집하여 실험연구를 수행하거나 또는 설문지조사, 참가자들에게 대한 觀察등의 方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研究의 가장 核心的 質問은 “사람들이 環境에 대하여 어떻게 배우게 되느냐(how do people learn?)에 관한 것이다.<sup>14)</sup>

認識(cognition)이란 知覺된 行動으로써, 이는 과거의 經驗이나 知的 適應力을 토대로 都市環境을 解析하고 選別할 수 있는 認知的 體系를 말한다. 地理學에서 認識에 관한 研究의 着점은 都市環境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그 知識이 어떻게 行動의 基로서 有用하게 활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研究에서의 核心的 研究課題는 “사람들이 都市環境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냐(what do people know?)”에 관한 것이다.<sup>15)</sup>

態度(attitude)란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개인이나 집단, 또는 대상이나 활동들에 대해 갖는 感情, 氣質, 혹은 好意도를 말한다. 都市環境

에 대한 態度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연구에서는 都市의 혼잡한, 人口 構成, 公共施設物의 사용 패턴 등을 포함한 都市 生活環境의 특징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評價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sup>16)</sup>

### (2) 都市内部에서의 通行패턴

“사람들이 都市에 關해 어떻게 배우게 되며, 그들이 都市에 關해 알고 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意味하는가, 또한 그들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하는 점들은 모두 都市에서의 人間-環境과의 相互關係의 패턴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要素들이다. 즉 都市内에서의 通行決定行爲(trip-making behavior)와 居住地 移動 또는 都市内에서의 人口移動패턴을 研究하기 위해서 都市環境에 대한 사람들의 知覺, 認識, 態度에 關한 연구는 대단히 중요하여 필수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領域이다.

1950년에서부터 1960년대의 都市地域學者와 都市交通計劃家들은 都市地域을 비교적 同質的인 特性을 지닌 通行配分區地區(traffic assignment zones)로 細分하고, 이 通行配分地區간의 실제 通行量과 감정적 通行量에 關해서 연구하였다. 그리고 이 通行量은 주로 그 地區의 거주자수, 직업, 通行 유형과의 關連성을 고려한 重力모형을 이용하여 測定하였다.<sup>17)</sup> 아직도 交通工學者나 都市計劃家들은 이런 方法을 사용하고 있지만, 地理學者들은 이런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서 都市内에서의 通行에 關한 사람들의 經驗을 중심으로 研究하며, 都市民들이 어떤 方

14) 대표적인 연구로는

Palm, R. et al., 1983, *Home Mortgage Lenders, Real Property Appraisers and Earthquake Hazards, Program on Environment and Behavior*, Monograph No. 38, Institute of Behavioral Science, Boulder: University of Colorado.

15) Gould, P. and White, R., 1974, *Mental Maps*, Baltimore: Penguin Book;

Smith, R.L., 1982, *Neighborhoods Inside and out: Comparative Perspectives on the Meaning of Neighborhood*, Doctoral Dissertation, Department of Geography,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16) 대표적인 연구로는

Appleyard, D. et al., 1964, *The View from the Road*, Cambridge: MIT Press;

Lowenthal, D., 1972, *Environmental Assessment: Comparative Assessment of Four cities*, New York: American Geographical Society;

Relph, E.,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London: Pion;

Tuan, Yi-Fu, 1974, *Topophilia: A Study of Environmental Perception, Attitudes and Values*,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7) Berry, B.J.L. and Horton, F.Z., 1970, “Internal Structure: Physical Space,” and “Movement,” Chapter 12 and 13, in *Geographical Perspectives on Urban Systems*, pp. 440-556,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법을 통해 都市景觀에 대하여 좀 더 쉽게 이해하고 또 명료하게 파악하게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여 유효적절하게 都市景觀을 變形시키고 있는가에 대해 分析하고 있다.<sup>18)</sup> 그리고 이를 토대로 都市内部에서의 能率的인 通行의 結果를 얻을 수 있는 方法을 제시하여, 都市内에서의 通行決定過程에서 시간과 거리의 相互關係가 移動의 형태, 目的地 순위등에 어떻게 制限을 주고 있는가를 연구하고 있다.<sup>19)</sup>

### (3) 居住地 移動

都市地域에서의 住民들의 居住地移動은 都市를 變形시키는 강력한 要因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 大都市地域의 주택수의 약 90% 가량이 개인의 소유이거나 또는 개인이 임대하고 있으며, 매년 약 20%의 家口들이 그들의 居住地로 옮기고 있기 때문에 居住地의 移動 패턴을 이해하고, 그 移動要因을 分析하는 것은 미국의 都市變化나 그 構造變型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接近方法이다. 都市地域에서의 居住地 移動패턴에 관한 핵심적 研究課題는 ‘누가, 왜, 어디로 移動하는가?’에 관한 것이다<sup>20)</sup>.

### (4) 都市의 物理的 環境과 人間活動 : 構造主義的 觀點

사람, 人間活動, 그리고 環境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최근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는 하나의 觀點은 “都市는 文化的 體制와 相互作用하는 物理的 體制이다”라는 점이다. 都市는 地形的 特性의 영향도 받으며, 또한 自然的·人工

의 景觀의 영향도 상당히 받게 된다. 이를테면, 지진, 대기역전현상, 해안침수, 사대등은 그 代表的인 例이며, 기후, 지표수, 지하수 등도 사실상 都市環境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都市景觀을 구성하고 있는 自然的 人工的 要素들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地理學者들은 環境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들간의 관계 및 그러한 關係들의 특징적 패턴뿐만 아니라, 그 패턴들이 發展되어 나가는 政治的·社會的 맥락까지도 조사·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接近이 곧 構造主義 立場에서 都市를 이해하려는 研究活動으로써, 개개의 要素들과 그들의 分布를 단편적으로 研究하는 대신에 都市를 총체적 사회의 하나의 구성요소로 간주하고, 개개의 事件을 좀더 크고, 좀 더 一般的인 過程과 관련시켜보려는 接近方法이 곧 構造主義的 接近이다.

이와 같이, 都市의 構造化를 들여다 볼 수 있는 理論의 기틀은 사회의 總體的 構造에 영향을 주고 받는 개인의 힘이나 조직의 힘을 명확히 밝혀줄 수 있으며, 또한 構造主義的 接近에서는 특정한 時·空間上의 環境에 처한 특정한 制度의 역할과 관련지어 環境을 이해하고 해석함으로써 社會의 전체적인 構造를 파악해보려고 한다. 構造化 理論(theory of structuration)에 따르면, 개개인의 行動特性(agency)과 環境의 構造(structure of environment) 사이에는 因果關係가 높다는 것이다. 巨視的 觀點에서의 構造化 理論에서는 環境 또는 局地的 空間은 가능한 한 폭넓게 고려하여야 하며, 社會構造의 概念도 念意하고 있으며, 微視的 觀點에서의 構造化 理論

18) 선구적인 연구로는

Boulding, K.E., 1956, *The Image: Knowledge in Life and Society*,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Lynch, K., 1960, *The Image of the City*, Cambridge: M.I.T. Press.

19) Pred, A.R., 1977, "The Choreography of Existence: Comments on Hägerstrand's Time-Geography and Its usefulness," *Economic Geography*, Vol. 53, pp.207-221;

Palm, R. and Pred, A.R., 1978, "The Status of American Women: A Time-Geographic View," in Lanegran, D. and Palm, R. (eds.), *An Invitation to Geography*, pp.99-109, New York: McGraw-Hill.

20) Clark, W.V.A., 1982, *Modelling Housing Market Search*, New York: St. Martin's Press;

Golledge, R.G. and Rayner, J., 1982, *Proximity and Preferenc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Rossi, P.H., 1980, *Why Family Move*, Beverly Hills: Sage;

Simmons, J.W., 1968, "Changing Residence in the City: A Review of Intra-Urban Mobilty," *Geographical Review*, Vol. 58, pp.622-651.

에서는 環境이란 行動을 위한 하나의 場面 내지 背景으로 간주되며, 또한 사람들이 活動的으로 組織化하고 變形시킬 수 있는 狀況(situation)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社會·經濟的 環境이라는 組織의 特性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불리한 生活環境을 개선시키거나 변화시키기 위하여 매우 적극적이고 活動적인 行態를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構造主義 또는 構造化理論에 따른 接近方式은 人間—環境과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眼目을 제공하여 준다.<sup>21)</sup>

종래의 都市研究에서는 주로 空間패턴과 物理的 構造를 기술하는 일, 또는 都市環境을 변형시키는 人間活動에 관해 주로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최근의 都市研究 動向은, 변화하고 있는 都市環境內에서의 知覺, 認識, 態度, 그리고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인 人間行動을 포함한 相互作用的 行態를 이해하고 자하는 것으로서, 이는 都市에 관한 地理學的 探究에 새로운 方向이나 轉機를 마련해주고 있다.<sup>22)</sup>

#### (5) 歷史性이 있는 現存 都市環境

都市環境에 대한 知覺, 認識, 態度를 강조하는 研究領域중의 대표적인 分野는 都市의 歷史性을 보전시키려는 연구활동이다. 이러한 研究活動에서 밝혀보고자 하는 궁극적인 目標은 다음과 같다. 즉, 과거에는 아마도 낡고, 구식이며,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어 없어져버렸을지도 모르는 都市 建築物와 場所들이, 오늘날에는 새로운 意味를 갖게 되므로 보전되어야하고, 또한 그들을 통해 과거의 思想을 회상해 볼 수 있

고, 때로는 더욱 發展시킬 수 있는 계기나 기초를 마련해 주기 위해 變型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23)</sup>

歷史性이 있는 建築物와 場所를 보전하고 있어야 한다는 動機의 하나로써 나타난 行態가 바로 愛國者들의 묘지를 만드는 것이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歷史와 또 그 歷史와 관련된 사람들을 記錄하고 있는 그런 場所들을 보전하기 원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歷史的으로 중요한 場所, 建築物들은 사람들에게 文化遺產의 價値를 認知시킬 뿐만 아니라, 과거에 대한 古典的 感覺을 제공하는 景觀들이다. 또한 이러한 歷史的 構造物들은 사람들이 都市環境에 보다 쉽게 適應하고 行動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都市計劃家들이 흔히 成功的인 文化景觀이라 일컬으며 보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歷史性이 있는 景觀이란 단순한 物理的 形象 자체로서의 意味를 갖는다고 보다는 과거 사람들의 生活이나 行爲와 관련된 歷史性을 담고 있는데 더욱 깊은 意味가 있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生活樣式에 의해 조형된 景觀이라는 면에서 그 價値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歷史性이 갖는 景觀으로서의 보전가치는 都市環境에 대한 現時代人的 感覺과 態度에 의해 판단되게 된다. 결국은 都市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知識, 目標, 氣質에 따라서 都市內의 建築物들의 보전과 그 配置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都市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 形成되게 되며, 또한 都市자체는 都市環境에 대한 사람들의 知覺, 認識, 態度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21) Cybriwsky, R.A., 1980, "Revitalization Trends in Down-town Area Neighborhoods," in Brunn, S.D. and Wheeler, J.O. (eds.), *The American Metropolitan System: Present and Future*, New York: John Wiley & Sons;

Giddens, A., 1981, *A Contemporary Critique of Historical Materialism*, Vol. 1. Power, Property and the State, pp.161-172,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Hodge, D.C., 1981, "Residential Revitalization and Displacement in a Growth Region," *Geographical Review*, Vol. 11, pp.188-200.

22) Fainstain, S. et al., 1983, *Restructuring the City*, New York: Longman.

23) Datel, R.E. and Dingemans, D.J., 1980, "Historic Preservation and Urban Change," *Urban Geography*, Vol. 1, pp.229-253;

Lewis, P.F., 1975, "The Future of the Past: Our Clouded Vision of Historic Preservation," *Pioneer America*, Vol. 7, pp.1-20.

#### 4. 結 論

環境이 人間의 生活에 많은 影響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人間은 어디에서 살든지간에 그 주위환경에 둘러싸여있기 때문에 環境의 制約을 받기 마련이다. 그러나 人間은 環境의 制約속에서도 그 環境에 適應하는 方法을 깨닫게 되었고, 이와 같이 環境에 適應하는 方式은 곧 독특한 生活樣式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環境에 대한 人間의 觀心은 그 自身에 대한 觀心事와 밀접하게 결합되어있는 것이다. 따라서 環境이 사람들의 行動이나 삶의 方式에 어떠한 影響을 미치고 있는가는 사람들이 그 環境에 대해 어떻게 知覺하며 認識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環境에서 다른 새로운 環境으로 移動하게 되면, 그 새로운 環境에 適應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고립감 내지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人間의 生活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都市化의 時代속에서 급격히 변천하고 있는 都市環境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조형되어 있는 都市環境은 과거로부터 축적되어온 것이며, 특히 좋은 都市景觀을 만드는데는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은 것이다. 그러나 都市란 살아 있는 有機體의 特性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過程을 거쳐서 좋은 都市가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歷史의 흐름과 都市의 成長・發展에 따라 그 空間構造는 변형되기 마련이다. 급속히 成長해나가는 人口와 복잡한 都市機能을 受容해나가기 위하여 都市機能分化에 따르는 都市空間構造의 高度化, 生産構造의 變化를 주축으로 하는 都市內部的 質的 變型을 위한 都市整備 및 都市再開發事業등은 필연적으로 전개해나아가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事業을 시행하는 궁극적인 對象은 人間이며, 따라서 사람들의 知覺과 意識, 思考, 行動에 기초하여 都市環境은 조성되어야 한다.

都市에는 그곳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公共의 印象이라는 보편적인 영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영상은 社會集團階層에 따라 다른 形態로 나타날 수 있으며, 같은 都市

環境안에서도 人間の 意識은 다양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그동안 政府가 불량주거환경을 兩開發한다는 취지로 벌려온 수많은 都市再開發事業에서 그 主體가 누가 되어왔는가를 검토해보는 일은 매우 가치로운 일일 것이다. 特定地域 住民들이 그들의 經驗과 學習에 비추어 그들이 살고 있는 環境에 대해 어떻게 認識하고 있으며, 또 그 外現으로서의 空間構造에 대해 어떻게 行動하고 있는가에 대한 심층적인 研究가 선행되지 않은 채 居住地域의 物理的 景觀만을 고려한 都市再開發方式은 행정일변도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어느 면에서는 展示效果만을 위한 것 밖에는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都市計劃家나 都市工學者들이 그들의 計劃이나 設計를 구상할 때는 그 地域住民들이 主體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特定한 都市環境에 대한 人間行態의 觀點에서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人間の 意識이나 行爲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都市環境에 대한 연구는 科學的 方法論만으로는 정확하게 分析하기 어렵다. 環境知覺을 중심으로한 行態의 接近方法과 人間の 經驗을 바탕으로 한 人間主義的 接近方法을 통해, 環境에 대한 人間の 經驗體系의 內부를 규명할 수 있으며, 따라서 다소나마 現地住民의 視覺에서 環境을 認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都市景觀이란 단순한 人工物로서의 形態가 아니라, 生活樣式에 의해 조형된 것으로 文化的 價値와 態度까지도 내포하고 있음을 밝힐 수 있다. 이러한 研究는 人間-環境의 關係를 연구하고 있는 地理學者(특히 都市地理學者)들에 의해 수행되어야 될 것이다. 이미 외국에서는 都市計劃이나 都市再開發事業들을 수행하고자 할 때는 地理學者들이 제시하고 있는 都市環境과 人間行態에 대한 研究結果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좀 더 민감하고 책임있는 都市計劃과 設計를 수립하여 바람직한 方向의 都市環境을 형성해나가기 위해서는 人間行態의 觀點에서 都市環境 내지는 人間-環境과의 關係를 밝혀주는 研究들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